

데스크 시각

타는 목마름으로



홍행기 정치부장

5·18이다. 호남인의 피와 눈물과 한숨을 거름 삼아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워낸 5·18 그날이 36년 전 바로 오늘이다. 눈 감으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천천히 먹으라”며 내밀던 주먹밥, 대학생 형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간 뒤 소식이 끊긴 옆집 친구,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살벌한 표정의 계엄군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가는 그날이다.

광주·전남 출신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생)라던 거의 모두가 경험했겠지만, 군사정권의 서울이 시퍼렇던 80년대 5월의 대학 교정은 낭만이 아니라 메카한 최루탄 냄새와 전투경찰로 가득 찬 곳이었다. 격렬한 대모가 하루결러 이어지고, 그때마다 교정엔 전경들이 발사한 최루탄이 회색 연기를 내뿜고 지랄탄이 땅

소포로 보내온 면도칼

대학 시절 대모를 하다 전경이 쏜 최루탄에 눈을 맞아 수술을 받은 과 동기 용석 이도 생각한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녔지만 광주가 고향인, 요즘 ‘일베’들이 싫어하는 ‘호남 출신’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순진하지만 위협심 강한’ 그가 대학에 들어와 ‘민주 투사’가 된 것은 ‘5·18 광주’를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평소에도 타 지역 출신 선·후배들에게 5·18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기에 당연히 그랬을 만하다고 모두들 생각했다.

수술을 받은 지 몇 달 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강의실에 나타난 그의 얼굴을 우

리는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는 환하게 웃었지만 우리 동기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두가 마음속으로 울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용석이는 최루탄을 맞아야 했을까. 왜 그는 실명을 해야 했을까. 그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마무리된 것이 한 달여 전이다. 야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태동한 ‘녹색 바람’에 힘입어 야권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만들어 냈다. 호남권에선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압승하고,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선 선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었다.

또다시 광야에 서서

국민은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한 여권을 향해 혹독하게 책임을 물었고, 야권엔 정권 교체에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했다. 호남은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불릴 만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냄으로써 빛바랜 호남정신의 부

활, 쇠락해 가는 호남정치의 복원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80년 광주의 5·18’이 군홧발에 짓밟힌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해 냈듯이, 그 5·18에서 비롯된 ‘민주·평화·인권’의 호남정신이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져 가는 한국 정치를 되살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 호남정신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80년대 대모를 막아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그리고 자옥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뜨겁게 울려 퍼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도 제창이 거부된 것이다. 이는 5·18의 모태이자 민주성지인 호남, 그리고 호남정신을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소통과 협치·통합을 촉구한 4·13총선의 민심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광주는 또다시 ‘호남, 그리고 5·18 정신이 왜곡되고 거부되는’ 메마른 광야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호남은 더 이상의 차별, 더 이상의 소외를 거부한다. 정부는 4.13총선 결과가 나타난 의미를 잊어선 안 된다.

광주는 5월의 민주 영령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싶다. 타는 목마름으로.

社說

36년 세월 흘렀어도 끝나지 않은 ‘5월 광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이지만 응어리진 ‘광주의 하늘’은 무겁기만 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6년이 흐르는 동안 광주가 꿈꾸었던 대중세상은 얼마나 실현됐을까.

또다시 찾아온 그날,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반쪽에서 맴돌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제창 방안을 찾아보도록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진보 운동권에 끌려갈 우려가 있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극히 일부 극우세력의 열도당도않은 주장이 국민을 들로 갈라놓고 말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민주화 현장에서 또 뜨겁게 불린다 한다. 자유와 정의·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 가치를 담아 세계인의 가슴을 적시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진대 오히려 민의를 거스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내년 5·18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

곡’을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월의 마지막 축제인 시민들에 대한 발표 명령자 규명도 아직 미궁이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진압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엇그제 한 월간 시사 잡지에서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했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며 또 한 번 광주시민의 가슴을 후했다.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는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요.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쥐고 이렇게는 (발포 명령을 내리라고는) 절대 못 해”라는 말로 비켜갔다. 그러나 그때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 계엄사가 보안사 손아귀에 있었다는 사실이야 삼척동자도 알지 않는가.

백 번 양보해 직접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누군지는 알고 있었을 테다. 이 또한 역사 앞에 이실직고해야 할 그의 엄중한 책임이다. 언젠가 발표 명령자를 찾아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정부는 ‘보육 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전남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또다시 ‘보육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전남 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료 전담 급여 지원이 끊기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어제 열린 임시회에 135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개월 분 508억 원은 빠졌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당장 초·중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6월 임시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 유치원 예산만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 공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 편성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이

며 정부가 교육청에 분배한 지방재정교부금으로는 유지원·초중고 교육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올 초 보육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지켜보며 또다시 가슴을 졸이고 있다. 어린이집 예산이 미편성된 전남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비 지원이 곧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교육보다 급여를 더 걱정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소요될 재원을 분담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재원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판단해 누리교육 과정을 도입한 만큼 실효를 거두는 정책적 사후 관리 또한 필요하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이 되는 교육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은편클럽

대박만 외치는 사회, 소는 누가 키우나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란단. 바다에서 쓰는 큰 배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싣고 들어오니, 언제나 가난했던 선조들에겐 큰 배가 들어오는 날이 여러 재물이며, 먹거리가 손에 들어오는 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큰 배는 큰 물건과 함께 횡재하는 날의 일반적 표현으로 굳어진 표현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흥보가 제비에게 배운 선행으로 얻은 박을 터트려, 온갖 귀한 재물과 복을 얻었다는데서 유래해, 큰 박이 대박이 되었다는 설이다. 흥보가는 ‘박타령’으로 불릴 만큼 박다는 대목이 하이라이드이자, 당대의 명창들이 즐겨 불렀으니 이것이 널리 퍼져 오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노름판에서 ‘박’은 여러 번 패를 잡고 몰주노릇을 하는 일이나, 그렇게 해서 얻은 뒤편을 말하는데, 거기에 큰 대(大)자를 합쳐 크게 횡재한 돈이나 경주 200만명이 도박중독 유행자로 추정되고, 발달한 인터넷 환경으로 불법도박시장이 160조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불안정한 미래, 과도한 경쟁과 긴장이 현실도피로 이어져 회사원, 주부와 학생들까지 도박에 빠져 갈등을 유발하고 가

다. 그러니 졸지에 돈벼락을 맞으려거나 불로소득을 얻기 바란다는 반 덩달이요, 행운을 비는 인사말이리라.

나 역시 가끔은 복권을 사, 일등을 꿈꾸며, 멋드러진 차에 전방 좋은 집을 갖고 싶다는 대박을 꿈꾸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선생님나 학생이나 대박만을 외쳐대니 이게 제대로 가는 판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사람은 누구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복권 당첨을 꿈꾸다 경마, 경륜, 카지노 등 허가된 영역에서 점차 불법도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뉴스에서 보던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박중독자수로 본 우리나라 도박유병율은 5.4%로 영국의 2.5%, 프랑스 1.3%에 비해 두 배 이상이며, 20세 이상 인구 중 200만명이 도박중독 유행자로 추정되고, 발달한 인터넷 환경으로 불법도박시장이 160조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불안정한 미래, 과도한 경쟁과 긴장이 현실도피로 이어져 회사원, 주부와 학생들까지 도박에 빠져 갈등을 유발하고 가

정파탄, 심지어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개인주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특위는 발상과 아이템으로 몇 년 만에 수백 수천억을 버는 세상이었지만, 하루 여덟 시간 꼬박 일하고 백만원 남짓한 급여를 받아 살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며, 이른 봄에 밭을 갈아 가을되어야 풀값이라도 건질 수 있는 농업인들이 아직 많은 게 현실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뒤편을 아껴 쓰고 저축하며, 육식 부리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이들이며, 너나없이 외쳐대는 대박열풍에 물들까 걱정이다.

그저 운 좋게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하는 말인데, 무슨 시비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온 나라가 ‘대박’, ‘대박’, ‘대박’만을 꿈꾸고 소원한다면, 소는 누가 키우고 고향은 누가 지킬 것인가?

은편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부부사랑, 지금 실천하자



김광태 능협안성교육원 교수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다. 핵가족 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문제·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부부사랑을 근간으로 한 가정의 화목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이 배운 사랑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여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족은 불박이처럼 늘 그리고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인 가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가족의 바탕인 부부사랑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자.

미국 9·11테러 사건 당시 월드트레이드센터에 갇혔던 베로니크 바위가 마지막 막과와 한 통화 내용은 이렇다. ‘엄마! 이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또한 같은 장소에서 실종 직전에 남긴 케네스 밴 오웬의 전화 메시지도 참으로 숙연하고 눈물겹도록 애잔하다. ‘사랑해, 지금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뒹가게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이쯤에서 우리 인생이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번쯤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더듬거리며 ‘사랑한다’고 말할 것임에 틀림없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실천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다. 귀곡천계(貴鵠鐵鷄), “고니는 귀하게 여기고 닭은 천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항상 곁에 있고 가까이 있는 현실적인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경구다. 가까이 있기에 너무 당연시 하고, 항상 곁에 존재했기에 그 소중한 가치에 오히려 둔갑한다. 눈을 멀리 돌리지 말고 가까이 곳에서 고마움을 찾아보자.

가족만이 아니다. 이웃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에게도 사랑을 뒤로만 보류하지 말자. 그런 면에서 톨스토이의 후회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그가 여행 중 한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 주막에는 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이 갖고 싶다고 울며 보았다. 톨스토이는 가방 안에 중요한 짐이 있어 지금은 줄 수 없으니 여행이 끝나면 가방을 가져다주겠다고 약속

했다. 얼마 후 가방을 가지고 그 주막에 찾아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죽은 뒤였다. 톨스토이는 아이의 비석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을 미루지 마라’

스티브잡스의 죽기 전 마지막 말도 의미심장하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뿐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가끔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을 돌아보자. 다시는 더 이상 못 만날 사람처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다가 올 것이다.

그동안 가족 간에 있고 지낸 감사함과 고마움을 찾아보자. 새로운 시작에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 그러니 이왕 마음먹고 하기로 결심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가족과 부부간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진심을 담아 외치고 실행하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FAX 222-019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